

임실, 농촌지역 개선 국비 대거 확보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선정, 총사업비 83억 확보

임실군이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국비를 대거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임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3개 신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8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83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등 지역개발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신평면과 지사면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대상 지구로 선정되어 각 40억원씩 총 80억원을 확보했으며, 임실군 역량강화사업 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앞선 2018년에는 관촌면과 성수면이 기초생활거점 대상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올해에는 신평면과 지사면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2023년까지 소재지의 가로경관정비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먼 소재지를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기능을 강화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공급체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평면은 거점기능 강화 및 지역 활력을 위해 예원예술대학교와 연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심가로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신평면 지역주민의 소통(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사면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각 계층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작은목욕탕과 주차장, 가로경관을 정비하는 등 낙후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시군역량강화사업 3억원은 지역인적자원 및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신규 개발과 기존 우수사례를 육성하는 데 투입된다.

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초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촌면 방동마을이 농촌다움복원사업에 선정되어 마을의 전통문화와 농업유산의 보존, 복원, 활용을 통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마을단위 종합개발 및 자율개발사업도 지속 확대 추진하여 역량이 있는 마을을 적극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민군수는 “농식품부의 농촌지역 발전사업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살기좋은 농촌지역을 만들어가는 기쁨을 다지게 됐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가을여행주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순창군, 고추장민속마을·강천산 중심 관광객 유치

순창군은 전북도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9 가을여행주간 특화 프로그램'을 추석연휴인 오는 12일에 시작해 29일까지 18일간에 걸쳐 고추장민속마을과 강천산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관광 콘텐츠인 먹거리와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함은 물론 가을여행주간을 통해 대국민 여행 참가 독려 및 지역관광 붐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이번 가을여행주간 기간동안 순창을 방문하는 단체관광객, 개별관광객 등 총 1500명을 목표로 적극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참가비 1만4000원이면 서울역, 잠실종합운동장 등에서 출발하여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과 발효소스도굴 관람, 순창 고추장 불고기 및 발효커피 맛체험, 호남의 소금강인 강천산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방문코스 중 하나인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은 고추장 장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순창 고추장의 명성과 전통적 제조방법을 이어가며 장인들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곳이다.

또한 전통장을 보관하는 대형 저장고인 발효소스도굴은 인공 동굴 형태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소스와 발효식품을 관람할 수 있는 순창군의 대표 관광시설이다. 여기에 미디어아트와 트리아트, 최근 FPS(First-Person Shooter) 방식의 VR콘텐츠까지 구축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호남의 소금강인 순창 강천산에 사는 깊은 계곡과 맑은 물,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절경은 물론 강천산의 명물인 병풍폭포와 구장군폭포에서 힐링을 체험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제9회 최갑석 가요제 23일까지 접수

임실군이 주최하는 '제9회 최갑석 가요제' 참가신청 접수가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최갑석 가요제 참가신청은 방문접수(문화관광치즈과)를 비롯한 팩스,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예심은 오는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임실문화원 공연장에서 열리게 된다.

'2019 임실N치즈축제' 기간 열리는 '최갑석 가요제'는 오는 10월 4일 오후 7시부터 치즈테마파크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0년 최갑석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 그해 10월에 제1회 최갑석 가요제를 개최하고 2013년에는 주민들의 성금으로 관촌면 사산대에 최갑석 노래비를 건립했으며 가요제는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가을밤과 함께 열리는 이번 가요제는 1950년~60년대 '삼팔선의 봄'과 '고향에 찾아와도' 등 50여개의 명곡으로 가요계를 평정하였던 최갑석을 기념하기 위한 가요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을 포함한 총상금 400만원이 지급되고 가수인증서도 함께 수여된다. 특히, 주현미, 김혜연, 성진우 등 인기가수들의 무대는 놓칠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구룡교 성능개선 국비 예산 확보

주민 오랜 숙원사업 해소로 교통사고 위험 감소 기대

순창군이 팔덕면 국지도 55호선내에 위치한 구룡교 성능개선 사업비 8억원(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 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다.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강천산 군립공원을 가는 경로에 위치한 국지도 55호선 내 구룡교는 매년 150만명이상이 방문하는 곳으로, 정밀점검 및

내하력 평가결과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 결과 내하력 부족으로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시급하게 안전성 확보 및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소장 김정주)는 순창군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구룡교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개선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동안 이곳은 국지도 55호선내 구룡교와 신규 버스노선인 찬물내기 방향 도로 접속부의 회전반경 부족으로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이번 사업비 확보로 중심선 변경 및 가각부 정리 후 회전반경을 확보해 교통사고 위험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군은 전망하고 있다.

팔덕면 한 주민은 “이번 구룡교 성능 개선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 감소, 도로기능 향상으로 생활편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10일 초등학생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월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남원시는 10일 초등학생들에게 상시·일시돌봄, 등·하원 지원 등 남원시 최초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월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소식에는 이현주 시장과 시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돌봄 교사가 일상적 활동지원을 비롯해 숙제·독서지도 및 간식을 지원하고, 아동별 일정에 따라 상시·일시(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환익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요천생태습지공원, 힐링 메카 발돋움

천연잔디야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 생활 체육시설 조성

남원시가 생태 휴식공간과 생활 체육시설, 애견 놀이터를 갖춘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건강을 위한 힐링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요천생태습지공원은 14만5,298㎡ 규모로 단지부와 습지부로 나뉘져 조성

되어있으며, 단지부에는 천연잔디야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의 생활 체육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은행나무, 소나무, 무궁화, 화살나무 등 다양한 생태식물을 볼 수 있는 생태식물조성단지과 가족들이 놀러와 편하게 쉴 수 있는 모정 쉼터,

반려견이 놀 수 있는 애견놀이터 시설, 대형 주차장, 음수대, 화장실, 고정형 대형 파라솔, 관리용 CCTV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탁 트인 공원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즐길 수도 있다.

특히, 애견놀이터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장한 애견놀이터로, 2,000㎡ 규모에 소형견, 중·대형견, 격리공간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고 잔디 놀이터가 있어 애견인과 반려견이 함께 뛰어 놀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